

고창군 개발에 시름하는 문수산 단풍숲

고창 문수사, 전주지법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승인 취소' 제기

산악오토바이 코스 수행처 통과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문화재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개발에만 몰두하는 고창군의 일방적인 행정에 더 이상 인내만 할 수 없다.”

호남 불교계가 문수사 생태환경 보호와 문화재, 수행환경 보호를 전명했다. 전북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천연기념물 463호 단풍나무 숲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고창 문수사(주지 선범, 조계종 24교구 선운사 말사) 주변에 대규모 유력단지 조성 공사 착공식을 감행했다.

호남지역 5개 교구본사(금산사, 대흥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를 비롯해 대불정,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등 12개 단체는 ‘문수산 생태보호, 문수사 문화재보호,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범만, 이하 대책위)를 꾸리고 문화재청과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승인 취소’ 소장을 전주지법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대책위는 12월 15일 전북불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는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등의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도 공익과 공공성이라는 이름아래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며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고창군의 사과 △팍스테이 빌리지 조성사업 즉각 중단 △천년고찰 문수사와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숲 보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문수사 주지 선범 스님, 금산사 일원 스님, 선운사 포교국장 심학 스님, 교무국장 도운 스님, 포교국장 종진 스님 등이 참석했다.

고창군 ‘신기 팍스테이 빌리지 조성사업’은 ‘2010 전북향토사업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의 예산(국비·군비 각 1억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 투입된다. 문수사 단풍나무 숲과 일주문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민박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수사 측의 사업 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12월 1일 착공식과 함께 공사 감행을 단행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고창군은 문수사 계곡에 산악용 4륜 오토바이(ATV) 코스 조성사업, 농촌체험장 조성, 임산물 판매전시장, 전통식당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이중 우선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문수사 단풍나무 숲을 통과하는 ATV사업

은 문수사와 협의 없이 계획됐다.

문수사 주지 선범 스님은 “지역주민에 이익이 된다면 본사인 선운사와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를 통해 숲에서 떨어진 곳의 문수사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무시됐다”며 “고창군은 문수사와 고창군, 마을주민들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으나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공사착공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투명한 행정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사찰의 수행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하는 사업을 요구할 뿐이다” 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터미널 주변 모텔 속 꿈꿔온 정토

군산 성불사 창건 30주년 맞는 종 명 스님

예나 지금이나 군산지역은 타 종교의 교세가 드세고 불자들이 많지 않은 반면, 항구도시의 특성상 무속 신앙도 공존하는 지역이다. 1981년 전법도량으로 창건된 성불사는 군산 고속버스와 직행버스 터미널이 바로 앞에 법당을 세웠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점을 터전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터미널부근의 지리적 특성상 주변에 모텔이 들어서서 등 임지조건이 좋지 않은 않았다.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은 예토를 정토로 바꾸겠다는 원력으로 30년 동안 지역의 포교 도량이 돼왔다.

군산 성불사는 종명 스님의 은사 벽송당 재훈 스님이 1981년 창건했다. 처음 가정집을 매입하여 2층에 법당을 신축하고 관음보살을 봉안하고 기도정진에 매진한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때 종명 스님은 은사스님과 함께 불자 직행버스 기사들의 법회를 지도하기도 했다. 터미널의 바로 뒤편에 도량이 위치하고 있어 버스기사들이 틈만 나면 절에 와 참배하며 안전운행을 기원했다. 스스로 기사 불자들을 모집해 정기적인 법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도 남달랐다. 신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불자들의 집에 매월 쌀을 보내 격려하고, 경로 시설인 수심양로원과 전북의



순창양로원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왔다.

“창건 30주년을 맞아 지역 불자들의 수행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세련되고 알찬 실행프로그램으로 불자들의 수행활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올해로 창건 30주년을 맞는 군산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은 불자들의 새로운 수행활동에 주력한다.

“내년부터는 신도조직을 개편, 활성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교역적인 포교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가족법회나 거사법회 창립을 포함해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종명 스님은 기도정진을 일관하고 있다. 종명 스님은 자비도량참법기도, 천수다라니 독경, 금강경 독경, 사경법회 등 다양한 수행활동을 통해 지역실정과 불자들의 근기에 맞게 수행생활을 지도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 bud1080@naver.com

광주전남신도회, 조직화 주력

광주불교회관 건립

광주전남신도회 활성화와 재가불자회 발전 방안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광주전남신도회(회장 지용현)는 12월 11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불교 및 시민단체와의 소통 △사찰신도회의 활성화 △스폰서십 및 홍보활동의 강화 △신도회의 교육강화 프로그램 개설 △광주불교회관 건립 △지역불교문

화의 개발 및 활성화 등을 통한 조직화에 입을 모았다.

행사에는 지용현 회장 송광사 신도회 박종현 회장, 광주전남 포교사단 정영균 단장, 광주광역시 시청불자회 송승중 회장 등 30여 광주전남신도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지용현 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신도조직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겠다”며 “단계별로 시군구 신도회장을 선임하고, 신도회의 산하조직을 구성, 시민들과 함께하는 불교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로 만든 김치 나눠요”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센터장 정선, 대광사 주지)는 12월 11일 대광사에서 스님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김장을 담고, 38구구에 300여 포기 김치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10일 소년소녀가장 20여 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동구불교협 신입회장 혜명 스님

광주동구불교협회 신입회장 혜명 스님 취임법회가 12월 11일 조선대 여자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회는 전 회장인 지각 스님 이임법회와 함께 불교영산작법 제5차 시연회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혜명 스님, 전 동구불교협회의 회장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유태명 동구청장, 박준선 민주당 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혜명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교의 발전은 존중에 있다. 종단과 성별 등의 차별을 떠나 종교의 소통을 통해 동구불교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각스님은 이임사에서 “광주지역 불교1번지 동구지역의 불교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적은 시간, 작은 나눔이 생명 살린다”

광주생명나눔, 2010 생명나눔의 날 후원자 및 봉사자를 위한 나눔 잔치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11일 콜롬버스시네마 하남점 대연회장에서 ‘2010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나눔의 날에는 1년간 노력한 자원봉사자, 후원자에 대한 포상과 치료기금 전달,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현지 스님,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백렬명 환

우가족,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생명나눔차량봉사단 문금자 단장, 원효사 청년회 박근용 회장에게 감사패를, 목포 보현정사 청년회 박성철 씨에게 조열모세포기증 감사장을 전달했다.

자원봉사 대상에는 매주 주말을 이용해 88시간을 봉사한 수완고 윤

미라 양이, 시상상에는 매년 60시간 이상을 봉사한 조대영과 박한솔 양이 수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콜롬버스시네마(대표 임장택)에서 모 집한 헌혈증 4000매와 아름다운 나눔의집 모금함 458만원, 김은희 후원회장의 500만원 전달식도 진행됐다. 현지스님은 “생명나눔의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다. 적은 시간, 작은 금액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독경대회 교정 프로그램 새 모델

선각종 10년째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 열여

교도소 재소불자들을 위한 독경과 노래자랑이 새로운 교정 프로그램의 새 모델이 되고 있다.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12월 15일 광주교도소 대강당에서 300여 재소자가 동참한 가운데 ‘제10회 불교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정암 스님을 비롯해 선각종 종단 사찰 스님들과 신도 3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36명의 재소자가

10개 팀으로 참여해 경연을 벌였다. 대상에는 ‘해연선사발원문’을 독경한 정재열 씨가, 우수상은 ‘사대주’를 독경한 박원락 씨가 수상했다.

정암 스님은 격려사에서 “독경대회는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자리보다는 불교의 진리를 실천하는 자리이다. 재소 불자들은 독경과 염불을 통해 참회의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天氣福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2)6015-6332/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벳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 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 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부터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편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